

# 유니버설 패션의 효과와 디자인제안

-장애인 패션쇼를 중심으로 -

이 난 희\* · 안 종 숙\*\*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뷰티아트학과 전임강사\* · 호서대학교 뷰티디자인 조교수\*\*

## The Effect of Universal Fashion and An Offer of Design

- With a Focus on Fashion Shows for the Disabled -

Nan-Hee Rhee\* · Jong-Suk An\*\*

Full-time Instructor, Dept. of Beauty Art, Seoul University of Venture & Informatio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eauty Design, Hoseo University\*\*

(투고일: 2007. 11. 13, 심사(수정)일: 2008. 8. 2, 게재확정일: 2008. 8. 18)

### ABSTRACT

In this study, the fashion show of the disabled was hold for the universal fashion through the clothes which has relationship with personal mentality and behavior.

There are several outcome of the fashion show.

First of all, the main outcome is that through the fashion show the disabled feel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m and the ordinary people. Also, it is necessary to the revitalize the product development with universal fashion design.

Secondly, the systematic succeeding study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disabled and to set up the database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have a general idea for the their actual living condition and essentials of life for the disabled.

Thirdly, even though the main purpose of the fashion show was to give them an opportunity to live fairly as a human being within their society, after the show, the necessity of social system to solve the additional problems and to continue the mental satisfaction comes.

Fourthly, the disable have a tendency not to wear the special clothes for them since they want to be seen as the ordinary person.

Finally, I suggest that there must be revitalization of a special design and the product development to reflect above mentioned points in addition to ordinary clothes.

Key words: fashion show of the disabled(장애인 패션쇼), universal fashion(유니버설패션), effect(효과), suggestion of the design(디자인제안)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의의

현대 사회는 사람들의 복지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후생 복지 시설, 의료지원 등 다방면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의 심리적인 충족이라는 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교통사고 및 다른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90% 정도라고 한다. 이는 정상인이라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 사회실현을 목표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익한 제품개발과 서비스 분야의 개척, 산업구조 개혁에 관련된 새로운 시장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패션계에 있어서도 배리어 프리디자인(barrier free design),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등의 개념의 필요성으로부터 유니버설패션(universal fashion)을 추구하는 상품공급이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내 패션업계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패션상품만을 대상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 결과 체형의 변화와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는 노년여성이나 신체장애인이 입을 수 있는 의복은 전무한 실정이다.

의생활의 향상은 일상생활에 의욕을 가져다주고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켜 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설패션의 보급은 장애인에게

한층 필요한 것이다. 신체장애인은 정상인과는 다른 신체적 특성 때문에 신체이미지가 왜곡되고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에서 규명된 바 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열등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며, 부끄러움과 소외감을 느낌으로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사회생활에 장애를 갖는다. 그러나 외모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복의

효과적인 사용은 장애인들에게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하는 매개체로 부각되고 있다. 의복은 신체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 재화에 영향력 있는 구성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의복을 착용하는 과정을 통해 독립된 기분을 갖게 되며 외모를 좋게 보이기 위해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능적이고 매력적인 의복은 신체장애인의 전반적인 자아존중감 향상 및 재화를 통한 사회참가를 촉진시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1)장애인의복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이론적 연구에 거치는 한계점이 있어 유니버설 패션을 제작하여 패션쇼를 자주 개최함으로써 의복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2) 장애인 패션쇼과정에서의 면담과 실제 의상제작을 통해 시급하게 장애인 의복디자인에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검토하고, 유니버설 패션의 보급을 위해 실천적 예를 제시함으로써 참가자의 심신의 변화와 생활향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객관화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장애인들도 쾌적한 의생활을 영위하여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상품개발의 촉진과 과제를 추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천안시 사회복지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 모델에게 생활환경과 의복에 관한 문제점이나 요구 사항을 설문조사와 인터뷰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의 자료를 토대로 각 장애별로 디자인을 도출하여 작품 제작 및 구성을 하였다. 쇼는 총 3회를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1회 및 2회를 중심으로 한 의상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패션의 효과와 디자인을 분석, 검토 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유니버설 패션의 개념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연령이나 능

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제품이나 환경디자인'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미국인 로널드 메이스(Ronald Mace)교수가 제창한 것으로서 <개조나 특별한 디자인이 필요 없이 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 건축,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되었다.<sup>2)</sup>

그 개념은 지원성이 높고(Supportive), 수용가능하고(Adaptable),접근용이하고(Accessible), 안전 지향적(Safely-oriented)것으로 정의 하였다<sup>3)</sup>

한편, 유니버설 패션이란 1999년 설립 된 일본 유니버설 패션 협회(UNIFA) 부이사장인 스즈키 준(鈴木 淳)이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로 협회회장인 스기(이마이)씨는 <유니버설 패션은 누구라도 현재의 패션이나 패션감각을 즐길 수 있도록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4)</sup>

이것은 연령이나 성별, 사이즈, 체형, 신체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패션 환경 실현을 의미하며 또한 모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평등하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시장 개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2. 유니버설패션 디자인 과정 및 원리

### 1) 유니버설패션 디자인 과정

유니버설패션 디자인을 고안함에 있어서 착용자를 둘러싼 사회 환경을 분석한 후 착용자의 생활환경 안에서의 문제점이나 요구 사항을 추출한다. 이때 착용자의 생리 기능이나 운동기능의 요인인 신체적기능면과 취향이나 착용감등의 심리적인 면을 인터뷰하여 의복에 있어서 요구하는 디자인 요소를 알아내어 구체적으로 의복디자인을 한다. 또한 착용시 반드시 착의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수정한다. 또한, 착의조사로부터 표출된 검토 사항을 과제로 하여 앞으로의 의생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 시킨다.

### 2) 유니버설패션 디자인 원리

유니버설디자인의 원리를 선행연구<sup>5)</sup>를 토대로 검

토 해보면, 지원성, 공평성, 심미성, 안전성, 경제성, 접근성 등 7가지로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다.

(1) 지원성이란 착용자의 신체적인 잔존능력을 고려한 여밈의 종류, 위치와 길이, 여유분을 고려한 의복의 설계를 말하며, 무엇보다 장애인 혼자서도 착탈을 용이하게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사용상의 융통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 이는 보장구사용으로 인한 마찰로 인한 특정 부위의 해짐을 방지하거나, 흡습성이나 통기성이 좋은 소재 등을 사용하는 것 등이다.

(3) 유니버설패션에 있어서 공평성은 장애인들의 의복요구사항에서 중요한 원리중 하나이다. 이는 일반인과 구별되는 요소를 최대한 제거한 의복디자인을 고려한 것이다.

(4) 안전성을 고려한 디자인은 신체기능이 저하된 장애인에게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로서, 미끄럼방지가 된 양말, 구두, 불연성 의복 등은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패션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5) 패션을 즐기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심미성이다. 유니버설패션에 있어서도 착용자의 결점을 보완하고, 심미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름답고 개성 있는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6) 유니버설패션이 제품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효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낮은 수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다.

(7) 유니버설패션에 있어서 접근성은 제품을 구입하기위해서의 편리성, 정보이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원리이다.

## 3. 유니버설 패션의 효과<sup>6)</sup>

### 1) 잔존능력의 활성화

의복을 입고 벗는 행위는 적어도 하루에 몇 번 씩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배설 행위를 통해 속옷을 갈아입는 횟수가 증가한다. 의복을 갈아입는 행위는 일상생활 동작 중에서 가장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입고 벗는 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은 신체 기능 회복의 재활치료에도 연결된다.

즉, 매일 의복을 갈아입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허리나 어깨의 근육과 손가락의 운동기능이 사용되고, 잔존능력이 활용되어 2차적 장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스스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고령자·장애자의 자립과 존립을 촉진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에도 연결된다. 잔존능력을 배려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이들의 의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잔존능력의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고안 이 바람직하다.

한편, 장애인의 잔존능력의 활성화를 위한 의복디자인에 관심을 보이는 한국장애인의상연구소, 한국유니버설패션협회, 장애우 복식개발연구회 등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선행연구로는 장애인의 의복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구조적 특성과 여밈에 관한 것 착용시 보조기에 따른 디자인개발 등의 연구도 진행되었다<sup>78)</sup>.

## 2) QOL의 향상

QOL(quality of life,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을 즐기는 행위가 필요하다. 생활이 즐거우면 기분이 좋아지고 살아가는 보람을 느껴 심신이 건전하게 된다. 우리들은 좋아하는 옷으로 치장을 하면 누구에게 보이고 싶고 외출하고 싶어진다. 또한 같은 재킷이라도 안에 입는 셔츠 색상이나 넥타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의복을 선택하고 입는 행위는 자기 결정의 표시이며, 자기실현의 표시이기도 하다. 치장은 자기의 즐거움인 동시에 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 3) 사회참가의 촉진

우리들은 의복을 통해 사회에 참가하고 있다. 입학식, 결혼식, 여행, 쇼핑 등 여러 가지 생활 장면에 맞추어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고 있다. 의복으로 치장을 한다는 것은, 사회에 대한 자기표현이며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즐기기 위한 매개물이기도 하다. 유니버설 패션의 개발과 실현은 사회 참가의 촉진율도모하며 큰 효과를 나타내게 한다.

신체장애자의 의복선호와 태도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분야가 되어 있다. 신체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의

복은 자신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도구로서 인식된다. 신체장애인의 의복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것과 장애인에게 요구 되는 의복디자인의 부분이 많다<sup>9)</sup>.

임현규<sup>10)</sup>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특수학교 남·녀 중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장애자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상성 및 성별, 연령, 장애부위, 장애정도 등의 개인적 특성 변인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해 관심이 높고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의복의 착용감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복의 만족도는 장애자용의복을 원하는 정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장애부위를 감추기 위한 의복선택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했다. 이는 장애부위를 감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에 의하면, 의복은 신체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 재화에 영향력 있는 구성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의복을 착용하는 과정을 통해 독립된 기분을 갖게 되며 외모를 좋게 보이기 위해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능적이고 매력적인 의복은 신체장애인의 전반적인 자아존중감 향상 및 재화를 통한 사회참가를 촉진시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Ⅲ. 패션쇼의 내용 및 절차

### 1. 쇼의 기획, 구성 방법 및 모델의 선정

#### 1) 쇼의 기획

천안시 사회복지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 모델에게 생활환경과 의복에 관한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을 설문조사와 인터뷰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의 자료를 토대로 각 장애별로 디자인을 제안하고 작품 제작 및 구성을 하였다. 쇼는 총 3회를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1회 및 2회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표 1> 패션쇼의 구성

시간	주제	장애에 의한 디자인 포인트	스태이지에 따른 디자인 포인트
1부	함께하는 세상 (이지웨어)	-입고 벗기 쉬운 전개형식(고무줄, 벨크로) -후만증의 경우: 뒤 맞주름, 러플 활용 -휠체어: 앞 장식으로 포인트를 줌 -빈약한 상 하의는 볼륨을 주기위해 주름이나, 덧대는 형식의 디자인, 퀴팅.	지팡이나 목발 휠체어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
휴식	(짜즈댄스) 축하공연	장애인 모델의 옷 갈아입는 시간을 벌기 위함	10분
2부	아름다움 드러내기: 여성 장애인의 여성성	-디자인의 초점을 여성성과 심미적인 면에 둠. -웨딩 드레스, 파티 드레스등. -의상치료 효과	장애인들의 활동에 제약을 줄이기 위해 드레스의 뒤 트레인을 배제하고 부피와 무게를 줄임.

2) 쇼의 구성

각 회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했는데 1부는 함께하는 세상(기능 복)과 2부는 아름다움 드러내기(세련된 의상)를 중심으로 장식 액세서리, 휠체어, 목발, 지팡이, 메이크업까지를 포함한 토탈 코디네이션을 지향했다.

3) 모델의 선정

연령은 27세에서 51세까지이고, 남녀 모두 17명이며, 그 중 남성이 3명이었다. 장애의 정도로는 뇌혈

관 장애, 척추장애, 소아마비, 뇌병 변 등의 장애로 인한 양쪽 하지 및 사지의 마비인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발이나 휠체어, 지팡이를 사용했다. 모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외출이 가능한 사람들로써 옷을 입고 벗는 것이 불편해서 외출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마비장애인의 경우 목발 사용자도 있었지만 목발보다 휠체어 사용이 편리 할 뿐 아니라 휠체어의 보급이 확대되어 대부분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휠체어의 사용이 늘어감에 따라 휠체어에

<표 2> 1차, 2차 패션쇼 여성 참가자의 장애정도 및 구성

참가자	나이	장애정도	비고
1	18세	지체2급, 뇌병변, 보조기구사용안함	
2	23세	시각장애, 신체 정상, 지팡이 사용	보조인 필요
3	27세	지체1급, 상체 정상, 하체 빈약(하반신 마비), 휠체어 사용	보조인 필요
4	27세	지체3급, 뇌병변, 보조기구사용안함	언어(발음 부정확)
6	35세	1급, 상·하체 빈약(왜소, 부자유), 전동휠체어	보조인 필요
6	36세	지체4급, 좌측 팔, 다리 부자유, 지팡이 사용	
7	35세	지체 2급, 행동 느낌	언어 부정확
8	40세	지체2급, 뇌성마비 행동 부자유, 목발사용	
9	42세	지체2급, 상체정상, 하체 빈약, 목발 사용	
10	45세	지체 2급, 손부자유, 행동느림, 휠체어 사용	
11	46세	지체 1급, 상·하체 비만, 손발 부자유, 휠체어 사용	보조인 필요
12	46세	지체 1급, 손발부자유, 하체 빈약, 휠체어 사용	보조인 필요
13	47세	지체3급, 소아마비, 오른팔 불편, 보조기구 사용 안함	
14	48세	지체4급, 상·하체 빈약, 보조기 사용 안함	후만증( 등이 휜)
15	47세	지체 3급, 보조기 사용 안함	후만증
16	50세	지체 3급, 지팡이 사용	
17	51세	지체2급, 뇌성변, 휠체어 사용	보조인 필요

〈표 3〉 패션쇼 남성참가자의 장애정도 및 구성

이름	나이	장애정도	비고
18	36세	지체5급, 보조기구 사용 안함	
19	34세	지체 3급, 소아마비, 지팡이 사용	
20	42세	지체1급, 하체 빈약, 휠체어 사용	보조인 필요

〈표 4〉 패션쇼 참가자의 신체치수

참가자	나이	보조기구	신장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등길이	어깨 넓이	소매길이 (좌/우)	특이사항	출현횟수 (1/2부)
1	18		156	86	70	91	38	44	54	뇌성마비	1/1
2	23		159	83	65	87	39	42	53	시각장애	1/1
3	27	휠체어	143.5	82	67	89	37	43	54	하체빈약	2/2
4	27		159	80	73	96	39	41	53/54	어깨기울기약함	2/2
5	35	전동휠체어	128	67	63	78	35	35	32/30	외소증	2/1
6	36	지팡이	156	96	80	97	38	44	52/54	좌부자유	2/1
7	35		164	93	85	96	40	41	55		2/2
8	40		157	79	62	82	38	39	53/50	근육떨림	2/1
9	42	목발	152	98	87	94	39	45	54	하체빈약	1/2
10	45	휠체어	156	92	82	93	37	43	52		1/1
11	46	휠체어	160	86	83	91	40	44	52	거의 마비상태	1/1
12	46	휠체어	155	84	74	88	39	42	53		1/1
13	47		153	81	69	83	38	39	50/52	어깨기울기심함	2/2
14	48		145	95	78	90	42	40	53	후만증	1/1
15	47		150	103	88	95	43	44	54	후만증	0/1
16	50	지팡이	163	91	83	90	40	41	53		2/2
17	51	휠체어	165	93	79	88	40	42	55	휠체어	2/1
18	36		174	101	92	96	44	49	61		0/1
19	34	지팡이	167	98	88	92	43	46	58/60	어깨기울기심함	0/1
20	42	휠체어	165	94	83	89	43	45	60	하체빈약	0/1

오르내리기 편리하거나 앉아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능성과 아름다운 디자인의 요구에 따라 디자인 했다. 패션쇼 종료 후에는 참가자에 대해 기획의 효과와 관계자의 의식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1>~<그림 9>

2. 의상디자인 및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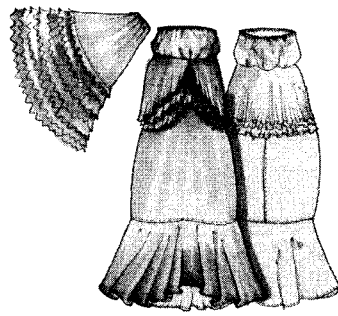
〈그림 1〉 장애인 뷰티 페스티벌 패션쇼 장면, 2006



<그림 2> 장애인 뷰티 페스티벌 패션쇼 준비 모습,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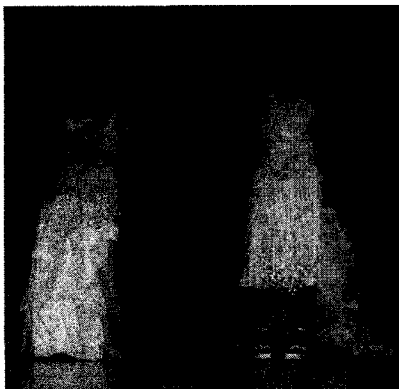


모델:시각장애, 신체정상, 보조인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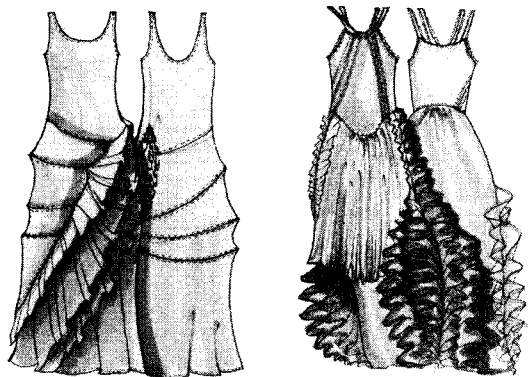


디자인: 시각장애인의 꿈을 표현한 무지개 컬러의 파티복 착장에 용이하도록 고무 밴드를 이용한 셔링

<그림 3> 장애인 뷰티 페스티벌 패션쇼 의상



모델1: 지체3급, 어깨경사, 행동부자유  
모델2: 지체3급, 신체빈약



디자인: 리듬과 울동감을 표현한 칵테일 드레스  
1. 몸 균형을 시각적으로 보완한 비대칭 디자인  
2. 빈약한 볼륨을 보완한 드레이프 & 레이스

<그림 4> 장애인 뷰티 페스티벌 패션쇼 의상



모델2: 지체3급, 오른팔부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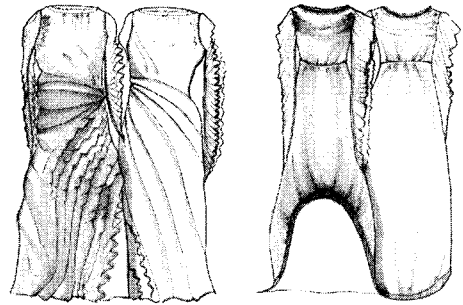


디자인: 파란 하늘을 주제로 한 파티복, 더블스커트를 펠트로 장식하고 착장에 용이하도록 벨크로 사용

<그림 5> 장애인 뷰티 페스티벌 패션쇼 의상



모델1: 지체3급, 어깨경사, 행동부자유  
모델2: 지체2급, 뇌병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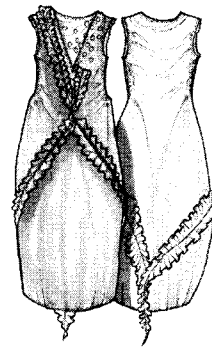


디자인: 균형과 울동미를 더한 파티복  
1. 동적인 느낌을 위해 레이스 소매를 추가.  
2. 보행에 편리하도록 앞길이를 짧게 디자인.

<그림 6> 장애인 뷰티 페스티벌 패션쇼 의상



모델: 지체1급, 상체 정상, 하체 빈약(하반신 마비)  
휠체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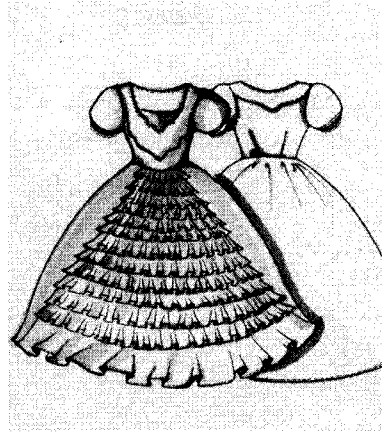
디자인: 방울방울 설레임을 표현한 약혼복  
착장에 용이하도록 앞여밈 처리, 고무밴드 스커트

<그림 7> 장애인 뷰티 페스티벌 패션쇼 의상





모델: 지체1급, 전신 마비, 휠체어 사용



디자인: 하얀 날개를 연상시키는 웨딩드레스  
전신마비 모델의 착장에 용이하도록 상. 하의 분리,  
벨크로를 사용한 여밈처리

<그림 8> 장애인 뷰티 페스티벌 패션쇼 의상



<그림 9> 장애인 패션쇼후의모습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패션쇼 참가자의 신체상의 특징

패션쇼를 기획하여 개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신체상의 특징에서 정상인들과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였다.

첫째, 상체, 하체의 불균형과 어깨 수평의 정도가 차이가 많았으며 팔 길이, 다리 길이 등의 차이가 보였다.

둘째, 모델 중에 하지마비의 경우가 있었는데 어깨의 경사도가 적었다.

셋째, 앞 치진 광이 정상인에 비하여 적었으며, 이는 가슴부분이 왜소함을 의미하고 등이 굽은 체형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신체상의 미발달에 의한 부조화로 볼 수 있다

넷째, 등 길이가 길며, 어깨가 다른 부위에 비해 넓은 특징을 보였다.

다섯째, 모델 중에 목발이나 지팡이 사용자의 경우, 목점(neck point)에서 가슴둘레 선까지의 길이가 뒷길이보다 짧았다.

여섯째, 극히 왜소하거나 비만하여 패턴의 수정이 불가피 하였다.

이러한 신체상의 특징이 보이는 것은 신체기능의 부족에서 오는 운동장애에 의한 직접적인 요인과 양친의 양육태도, 사회경험의 부족 등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간접적 요인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의복은 일반인의 의복과는 다르게 설계되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장애자의 신체적 특성과 생리적 특성, 운동 기능성,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기능 복 개발 및 기능 복 개발을 위한 필요 사이즈 항목을 제시 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 2. 패션쇼에 의한 의식 변화(QOL의 향상, 사회참가촉진)

모델로 참가한 장애인 및 관람객50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 및 인터뷰의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인데, 쇼의 진행 때문에 구체적인 설문내용으로 조사하기는 힘들었으나 패션쇼후의 심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했다<표 5>.

1) 대중 앞에서 당당함을 지니게 되었다 2) 자기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3) 꾸미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4) 주위 사람들에게 장애인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과 같은 의식 변화는 쇼에 참가함으로써 대부분의 장애인에게 몇 내기에 대한 의식 변화가 있었으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식계발의 가능성이 명백해졌다.

또한, 대부분의 참가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그 후의 3회 패션쇼에서는 서로 모델이 되려고 경쟁을 했고 패션쇼 후에도 외출도 자주 하게 되었고 미용실 출입이나, 옷을 구입하는 횟수도 많아졌다고 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말할 나위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자를 위한 심리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담당할 수 있게 터전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후생복지 뿐만 아니라 심

리적인 면도 충족 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3. 잔존 능력 활성화를 위한장애인의 의복요구 사항 및 디자인

신체장애인의 의복연구는 처음에는 착용기술의 습득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잔존능력의 활성화, 자립적 행동의 개념으로 도입되어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있는 의복이 연구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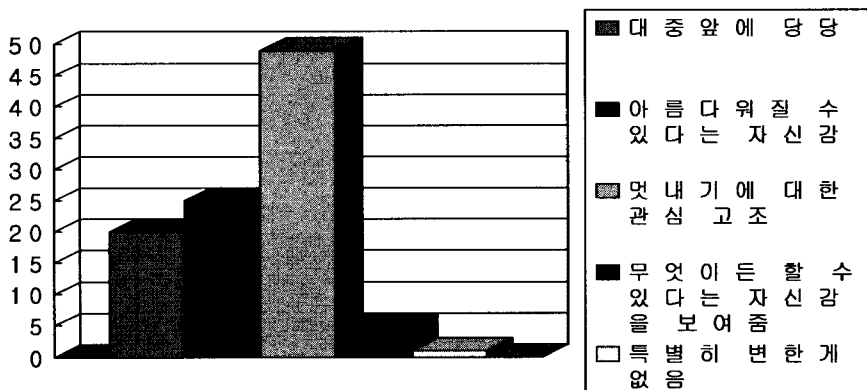
그 이후에는 자립적인 탈착용뿐만 아니라 기능성과 심미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에 부응하는 의복이 유니버설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니버설패션의 보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니버설패션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의복요구사항 및 디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패션쇼를 기획하는 과정에서의 장애인의 의복의 요구사항 및 디자인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첫째, 장애인 스스로가 일반인과 같아 보이고 싶어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장애인 만 입을 수 있는 특수복은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의복은 일반인과 같은 디자인과 심미성을 고려한 의복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이 혼자 착용할 수 있는 의복이 고려

<표 5> 패션쇼 후의 의식변화



되어야 하는데, 특히, 단추는 큰 것으로 하며, 지퍼는 손잡이를 크게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하여 탈착이 용이한 의복이 요구 되었다.

셋째,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자아존중 감을 줄 수 있는 의복이 기능적인 면만을 고려한 의복보다 선호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장애부위를 감추면서 착용감이 좋은 의복이 선호 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의 장애정도, 사용하는 보조기에 따라 디자인이 고안되어야 하는 복잡하고 세밀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를 위한 의복은 주머니는 옆 주머니보다는 앞주머니가 선호되었으며, 바지의 경우는 대퇴부나 옆 무릎아래에 주머니를 단다. 그리고 육창을 예방하기 위해 딱딱한 소재를 피하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착용해야 한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벗기 쉽게 하기 위해 신축성이 좋은 소재와 디자인을 선택해야 한다.

목발을 사용 하는 경우는 의복이 목발에 의해 당

겨져 상의의 앞이 벌어지거나 옆단이 올라가 옷매무새가 흐트러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앞트임을 도중까지 막아 앞단부분에 단추나 지퍼를 달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 <표 6>은 장애인 패션쇼를 통한 면담과 의복제작과정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심리적, 장애유형별, 보조기 별로 나누어서 정리한 것이다.

## V. 결론

장애인 패션쇼를 통해 유니버설 패션의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의복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고안해야 할 의복과 장애인들을 위한 패션계의 나아갈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패션쇼를 통해 장애인들이 심리적으로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으며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할 뿐 보통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커졌다는 점이 장애인 패션쇼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패션 분야에서는 장애인들

<표 6> 패션쇼를 통한 장애인의 의복 요구사항 및 디자인

요구사항 및 디자인		
심리적 측면	*장애인을 위한 특수복 보다는 일반인과 같이 보이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일반인의 의복을 수선하여 입는 것을 선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스커트나 드레스 종류의 의복 선호 *여성스러운 디자인 선호	
장애인유형	소아마비	*다리길이나 다리의 굵기의 차이를 감추기 위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긴 스커트선호.<그림 6> *바지통이 약간 넓은 바지 선호
	편마비	*지퍼나 단추보다는 탈부착이 간단한 매직테이프(벨크로) 사용한 의복 *앞여밈이나 허리 여밈이 고무줄 벨트같이 입고 벗기 편한 의복 선호 *단추를 채우기 어려운 사람은 부드러운 폭을 사용하여 여밈을 채우기 쉽게 함<그림 3> <그림 8>
	뇌성마비	*신축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한 활동적이며, 착용감이 좋은 의복
보조기별	휠체어	*주머니는 옆 주머니 보다 앞주머니 선호 *바지의 경우 대퇴부나 옆 무릎에 주머니 부착 *육창을 막기 위해 딱딱한 소재 피하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 사용 <그림7><그림8>
	목발	*목발 때문에 의복의 매무새가 변형되기 때문에 앞트임을 도중까지 막아 앞단부분에 단추나 지퍼를 담.
	지팡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매에 팔을 집어넣기 쉬운 신축성 있는 소재사용의복 <그림 5> *소매 디자인은 기모노슬리브나 셔츠슬리브로 소매 폭 넓게 하는 의복 고안

을 위한 패션쇼나 강습회, 전시회, 세미나 등을 통해 유니버설 패션의 효과인 1) 자립 능력의 활성화 2) QOL(quality of life-생활의 질)의 향상 3) 사회참가의 촉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자주 부여하여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같이 의복을 통해 심리적으로 행복감과 만족감을 얻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싶다.

둘째, 본 논문은 단지 장애인의 심리적인 발로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에게 패션쇼를 개최하여 인간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주기 위한 기획 의도였지만, 패션쇼를 끝낸 후에는 여러 가지의 부파적인 문제점 및 이러한 심리적인 충족감을 지속 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장애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국가적인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의 활성화, 장애인들이 자립하여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사회에서 소외되어진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패션 상품의 기획으로는 1)장애인 스스로가 일반인과 같아 보이고 싶어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장애인 만 입을 수 있는 특수복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과 같은 의복에 약간의 기능성을 보완한 상품개발이 바람직하다.

2) 장애인의 자존능력 활성화를 위한 의복이 고려되어야 하는 데, 패치테이프, 특히, 단추는 큰 것으로 하며, 지퍼는 손잡이를 크게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하는 의복이 요구 되었다.

3)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자아존중 감을 줄 수 있는 의복이 기능적인 면만을 고려한 의복보다 선호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상인과 같이 의복을 통해 기쁨과 행복함을 만끽하는 궁극적인 의복의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4) 장애부위를 감추면서 착용감이 좋은 의복이 선호 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의 장애정도, 사용하는 보조기에 따라 디자인이 고안되어야 하는 복잡하고 세밀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유니버설 패션 효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미

흡하고 한계점도 있지만, 유니버설패션의 보급과 장애인패션쇼를 통한 실천행동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장애인의복의 연구 활성화에 일조 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후속 연구로서 장애인의 가장 큰 문제점 및 애로 사항에 부합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의 모색과 함께 체계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 및 장애인의 생활 실태를 파악 할 수 있는 DB를 구축할 수 있는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인들과 같은 옷이면서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및 상품개발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 참고문헌

- 1) 田中直人, 見寺貞子, 김연희 외 역 (2007). 유니버설패션. 연세대학교출판부, p. 125.
- 2) 위의 책, p. 13.
- 3) Roberta L. Null 저, 이연숙 역 (1999). 유니버설디자인. 태림문화사, pp. 4-7.
- 4) 田中直人외 저 (2007). 앞의 책. 김연희외 역, pp. 128-130.
- 5) 나현신 (2007). 유니버설 패션디자인 연구. 복식, 57(9), pp. 125-135.
- 6) 田中直人외 (2002). 유니버-サルファッション. 中央法規, p. 13.
- 7) 심성식 (1976). 한국신체장애자의 의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생활과학연구원 논총, 7, p. 163.
- 8) 이영숙, 유혜자 (2003). 장애인을 위한 의복의 소재와 디자인. 응용과학연구, 2, pp. 1-11.
- 9) 홍성순 (2001). 장애인을 위한 의복디자인. 복식문화연구, 9(6), pp. 830-841.
- 10) 임현규 (1984). 지체부자유자의의복행동과 지각향상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